

위기의 예총만 살리지 않습니다 예총부터 예술인까지 모두 열매 맺는 조강훈의 5대 핵심 정책

더 많은 수확을 하는 예술인

-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 스마트 앱 개발로 예술인 플랫폼으로 소통 강화
- 예술인 활동경력 확인 관리 시스템 구축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확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

더 길게 뻗어나가는 광역연합회

- 광역단위 전문예술단체 지원금 지원 확대 추진
- 광역별 해외연수 예산확보를 통한 예술인들의 국제교류와 선진지 지원추진
- 지역거점 예술문화 특성화사업의 지자체와 협업 추진

더 풍성하게 커가는 지역 지회

- '지역 전문예술단체' 등록 추진
- 지역 대표 축제 공동추진을 통한 지역예술문화인들 활동 확대
- 지회 운영을 위한 실무간사 예산 지원 추진과 본부와 지역간 교류확대를 통한 소통 일원화

더 단단하게 10개 회원단체 지원확대

- 회원단체 운영 예산확보 및 관리시스템 지원추진 (경상비 등 예산항목 신설 추진)
- 회원단체별 대표 장르 사업 육성 및 예산 지원 및 융·복합 장르의 개발 및 유통 세계화 추진

더 든든하게 뿌리내리는 한국예총

-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예술인들의 권리와 안정적 창작 활동 보호강화
- 한국예총 지속적 경영관리를 위한 지원과 기반사업에 주력 (메세나와 아트펀드 등 운영)

한국예총! 왜, 조강훈 인가?

초직을 가장 잘 압니다

함께 험난한 태풍을 이겨내려면, 먼저 그 초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조강훈은 수 많은 크고 작은 조직에 몸담으며 조직을 혁신해 왔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지금의 예총은 일사분란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됩니다. 100만 예총회원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준비가 끝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오랜 훈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반드시 해냅니다.

그의 발자취 : 누가 키를 잡느냐에 따라 배의 항로가 달라집니다.

학력	역임
1985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05~2007 사)제6대 한국미술협회 고양지부 지부장
1994 소피아 국립 예술대학교 파인아트마스터디그리(MFA) 졸업	2007~2009 사)제25대 한국미술협회 경기지회 지회장 사)한국미술협회 전국지회장단 협의회장 아트광주 2014 조직위원장
	2014~2015 이종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
수상	2014~2016 대한민국 육군발전 자문위원
1982 한국 현대미술 대상전 대상 수상	2014~2016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2007 경기도지사상 수상(문화예술 부문)	2013~2016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2015 한국예술상 수상(문화예술 부문)	2015 세계로 평화나눔 문화축전 문화사절 위원
2015 한국예총 예술문화 대상 수상	2015~2018 재)고양문화재단 이사
2016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수상 (문화 부문)	2016 제29회 미스월드 유니버시티 심사위원
2016 서울문화 대상 수상(문화예술 부문)	2016 제1회 서울 국제 공예아트페어 조직위원
201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문화예술 부문)	2016 IAA 국제환경미술제 조직위원장
	2016~2017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
아트페어 및 단체전	2016~2018 전남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 자문위원
개인전 13회 (서울, 광주, 순천, 대구, 그리스 등)	2015~2019 IAA 아태평양 국가위원회 회장
(KIAF, SOAF, 서울오픈아트페어, 화랑미술제, 휴스턴 아트페어, 샌프란시스코아트페어, 마이애미아트페어, 킬른아트페어, 햄튼아트페어, 북경아트페어 등 국내외 단체전 및 초대전 300여회 참가)	2019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2022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2021~2023 제2기 전남 인재육성 도민추진협의회 위원
교육경력	현재
1996~1999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서양화가
1998~2003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사)한국미술협회 명예이사장
2014~2016 경기대학교 외래교수	중국 정주대학교 명예교수
2018~ 중국 정주대학교 명예교수	순천 조강훈 아트스튜디오 대표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자문위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T. 010-5346-1396 E. kanghun@naver.com

한국예총 64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기지 못할 역경은 없습니다.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조강훈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신뢰받는
예총으로 만들겠습니다.

최강해법, 조강훈은 합니다.

1

조강훈

대한민국 100만 예술인의 희망이 되는 한국예총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총가족과 대의원 여러분!
한국예총은 그동안 선대예총회장님, 이사장님, 대의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예총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술인센터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파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겨를도 없이 경매위기, 부도위기, 압류위기 등...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절체 절명의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우리 내부는 64년 예총역사에 유례없는 걱정과 갈등이 커져 있습니다.

먼저 위기극복을 위한 총론적 측면에서 **3가지의 해결 대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조강훈은 정부와 새로운 시대의 예술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뉴거버넌스 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해결사입니다.

위와 같은 판단과 고심 끝에 저 조강훈은 혼란에 빠진 예술인센터 문제를 수습하고 위기에 빠진 한국예총에서 예술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다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직-경영 전반을 개선하고 미래를 여는 정책으로 100만 예술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예총을 만들겠습니다. 예총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혁신과 동시에 관련규정의 손질, 사업콘텐츠 확보, 기반구축에 이르기까지 내·외부 전문가들 및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자립모델을 만들어 이 지긋지긋한 자립운영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예총 지원법'을 반드시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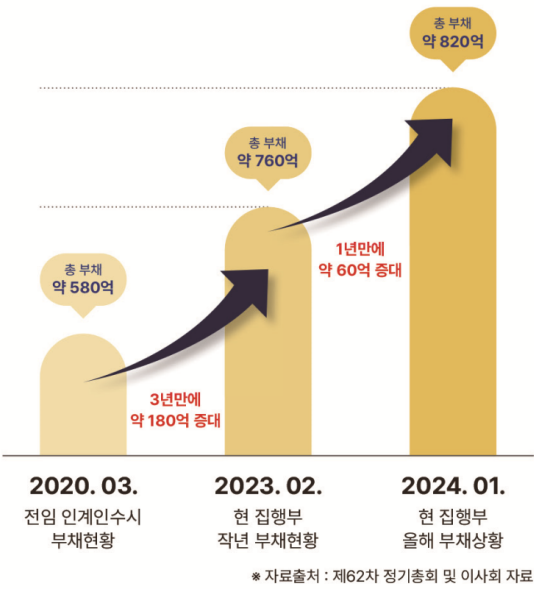
그뿐만 아니라 한국예총의 다가올 미래를 담당할 청년지도자 양성을 비롯한 5대 정책과 12대 비전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기반을 준비하겠습니다. 조강훈은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29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후보
조강훈 드림

벼랑 끝에 몰린 한국예총회관!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년간 채무 증대 175억 (년 평균 약 58억)
2023.02. (제62차 정기총회 자료인용)

2020. 03(전임과 인계인수시)	2023. 02(제62차 정기총회)
[부채현황 요약] · 유동부채 433억(은행여신 외) · 비유동부채 약 152억 (임대보증금 150억, 퇴직충당금 1.7억)	[부채현황 요약] · 유동부채 524억(은행여신 외) · 비유동부채 약 235억 9천 (임대보증금 234억, 퇴직충당금 1.6억)
총 부채 약 580억	총 부채 약 760억



조강훈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예술센터 전문 경영 컨설팅 등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이사회와 공동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대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안 최강해법

최상의 회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문화관광부에 긴밀하게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기업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뒤흔겠습니다.

B안 위기해법

법원에 회생신청 후 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00법무법원에 의뢰 가능성 판단 완료,
재판부 판단 획득 약 8개월 소요, 이후
절차에 따라 2~3년 이내 회생 완료가능)

C안 현실해법

현재 예술인센터를 기능별(공연관련 시설,
오피스텔, 오피스, 기타 시설)로 분리 설계하여
예총 필수 시설은 예총이 사용 유지하고
그 외 시설은 부분매각하여 실질적인 채무 약 600억을
확보하여 주요 부채를 단계별로 처리함과 동시에 예총의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D안 투명해법

예술인센터 회생방안이 없을 시
이사회 의 논의를 거쳐 공매를 통해 최고 금액으로
투명한 절차를 걸쳐 매각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예총! 여러분과 함께 조강훈이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최강비전! 조강훈이 말으면, 예총의 새로운 혁신이 시작됩니다

조강훈의 최강비전 01

법으로 한국예총의 제정을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한국예총 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한국예총지원법을 입법 추진하여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 받고
회원단체 및 지역예총의 정액보조 예산(사업 및 운영비)확보하여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조강훈의 최강비전 02

회원단체와 연합회의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회원단체, 연합회 운영비 지원 추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한국예총 회원단체(10개 단체)에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경상 운영비 항목을 신설,
안정적인 단체운영과 회원단체의 발전을 도모함

조강훈의 최강비전 03

책임지고 한국예총의 구조적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한국예총 구조 및 조직의 대전환

한국예총의 목표 달성과 가치 및 경쟁력 강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1차(사무총괄) 1소(연구 및 정책) 1단(사업) 2본부(경영혁신, 문예진흥)
9팀 체제로 전문인력이 책임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

조강훈의 최강비전 04

자부담비율의 완전폐지로 자유로운 활동을 돕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자부담제도 폐지 추진

정부-지자체 사업 성격에 따라 5~20%로 의무화되어 있는
모든 사업에 관한 자부담비율제 완전 폐지로 예술단체가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예술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추진함

최강비전! 조강훈이 말으면, 예총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조강훈의 최강비전 05

세계예술문화올림픽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축전의 '세계예술문화올림픽' 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의 국제행사 추진

세계 각국의 융·복합 예술장르를 망라한 예술단체와 함께
참여 하는 세계예술문화올림픽으로 전환 추진하여
한국예총 주최의 세계적 규모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킴

조강훈의 최강비전 06

글로벌 예술인재 양육과 인적교류에 노력하겠습니다

K-예술문화교육아카데미 개설

세계예술교육거점으로 K-예술문화의 소양 함양과 함께
정책과 예술을 이해하고 폭넓은 상호인적교류를 통해
글로벌시대의 전문 교육거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함

조강훈의 최강비전 07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과 예술인을 잇겠습니다

한국예술문화방송 설립

예술문화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회원단체와 지역예총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동개발하고 송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을 넘어 국민-방송예술인을 잇는 한국예총 방송을 활성화함

조강훈의 최강비전 08

대한민국 엘리트 예술인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K-아트활성화를 위한 기업 예술단 추진

한국예총과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예술단 설립추진을 통한
융복합 k-아트 활성화와 엘리트 예술인들을 육성하여 대한민국
예술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함

최강비전! 조강훈이 말으면, 예총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조강훈의 최강비전 09

지역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K-문화 예술교육아카데미 개설

정부와 지자체, 한국예총과 연대하여 17개 광역시도별 지역 예술원을 설립하여
지역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원로예술인들에게 매달 창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에서 예술창작활동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조강훈의 최강비전 10

예술인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예술인 추모공원(예총상조 포함) 및 예술촌 설립 추진

예술문화 발전에 공헌하신 예술인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삶의 흔적을 기리고, 또한 예술인촌 건립을 통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복지를 우선하며,
전시 및 공연 공간을 확보하여 창작작품 발표와 작품 판매 및 수익 창출

조강훈의 최강비전 11

일자리 창출과 소득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술문화 도시 미디어 특구사업 공동추진

서울시 서남권 신성장 거점사업인 문화예술특구사업
(현재 양천구미디어시티 및 예술문화 도시 추진 중)을 한국예총과 공동추진하고
참여함으로써 한국예총의 위상정립과 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확대에 기여함(예술 행정지원-공동 콘텐츠 개발·k결쳐기업유치)

조강훈의 최강비전 12

청년 예술인의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예술문화 위원회 설치

디지털시대에 맞는 시대흐름에 따라 정책 개발과 예술인플랫폼 구축 및
예술아카데미 등을 통한 청년 예술인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예술문화위원회를 설치함